

휘트먼의 기독교시학*

金 永 鎬**

I

휘트먼(Walt Whitman, 1819-1892)의 철학사상은 일반적으로 19세기의 미국 초월주의(New England Transcendentalism)라는 점은 그의 당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증되어 왔다. 1830년 Emerson의 「초월주의 헌장」(Transcendentalist Manifestos)을 출발로 하여 생성 발전된 이 미국의 신철학 및 문학운동은 서구의 합리주의 사상에서 벗어난 신비적, 형이상학적 인식에서 비롯된 우주론적 사유의 특성을 담지하고 있다. 자연의 모든 개체속에 신성(神性)의 내재를 바탕으로 한 개인과 개인, 신과 인간, 물질과 정신 및 시공의 일치를 주장하는 일원론적 세계관이다. 이 원리는 곧 새로운 미국의 도덕, 정치, 사회의 민주주의적 이념과 국민문학으로서 신낭만주의를 탄생시켰고 초월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중성이 합일된 휘트먼 문학의 토양이 된 것이다(金永鎬 22-37).

미국초월주의는 무엇보다도 그 직관적 사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존재의 “유한성(the finite)”을 “초월한다(overpass)”는 Aristoteles적 인식개념이 중세에 와서 “Transcendental”이란 철학적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Kant는 사물을 “선험(priori)”(Hart 770)으로써 인식하는 지식으로 보았다. Platon과 Plotinus의 직관적 관념론은 물론, Kant의 선험론까지 수용한 미국초월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신비주의와 동양의 불교, 도교, 힌두교등의 제 신비

* 본 논문은 94년도 숭실대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대부분의 인명, 고유명사 및 인용문은 지면 관계로 번역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하며, 성경내용 역시 詩작품과 비교를 위해 King James Version의 영어원문을 그대로 게재함.

** 人文大 英語英文學科 教授

주의를 습합하여 새로운 범신론적, 범철학적 사상을 구축했다. 만유속의 “신의 임재(immanence of God)”의 신념위에 神聖이 人聖으로 병치되고 物理와 도덕성의 일치를 주장했다. 이는 개인의 자존, 性과 族을 초월한 자유와 평등의 원리로써 일체의 인위적 권위체제에서의 해방을 주장하는 신미국 건설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따라서 생래적으로 개방적이고 낙관주의적인 휘트먼에게 이 이상주의적 관념론은 그의 삶과 예술의 원력이 되었던 것이다(金永鎬 38-55).

휘트먼과 초절주의의 이와 같은 깊은 연계성에서 학자들은 적지 않게 시인의 종교사상과 시학의 이데아를 기독교보다는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추구하여 왔다. 물론 초절사상이 유럽의 합리주의, 과학적 경험주의 나아가 칼빈주의나 퓨리탄주의에의 부정적 사유형식이라는 점에서 그의 신비적 성향을 동양사상에서 탐색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Meister Eckhart나 Jonathan Edward와 같은 신학자들의 보수적 정교론에서 벗어난 초자연적이고 직관적인 성령체험론(같은책 13-18)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기독교 자체에서도 神性的 내재와 神人一體의 특성이 담겨져 있다고 볼 때, 휘트먼의 신비적 태도는 기독교적 신비주의의 맥락에서 더욱 명증하게 추출할 수 있겠다. 그는 실제로 동양사상을 접하기 이전 유년 청년기에 기독교 교육을 통해 정신적 개안을 체득했으며, 본 논문에서 탐색할 예술에 투영된 그의 기독교적 사상은 그의 문학정신의 모체였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동양예의 관심은 기독교에 대한 더욱 심원하고 폭넓은 탐구와 재창조의 시도였으며 나아가 신과 인간을 함께 구원하는 “Christian humanism”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획득한 점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같은책 127-30).

휘트먼은 독실한 Quaker교인인 어머니 Van Velsor에 의해 어려서부터 교회예배에 인도되었으며 특히 청년기엔 Brooklyn의 St. Ann's Episcopal Church와 Dutch Reformed Church의 일요성경학교에 참석하여 성경지식을 쌓았다(Allen, 『The Solitary Singer』 9-10).¹⁾ 그는 또 당시 「성경읽기 운동」(Movement of the Book)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THE EAGLE」誌의 편집을 보면서 「A Merry Christmas Wishes The Eagle to its Readers」, 「Splendid Churches」, 「Christmas at Grace」등과 같은 산문들을 통해서 그의 기독교 신앙관을 보여 주었다(Bergquist 71-2). 휘트먼의 성서에의 애정은 남북전쟁시 남작 간호사로써 부상병(Oscar)에게 성경을 봉독해 주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이

1) Bergquist 71 참고.

야기 해준 사실을 회고한 「Specimen Days」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는 실제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도서가 욥기(Job)와 신약이었음을 밝혔고(『Prose Work』522), 아울러 성서가 가정유아교육의 최우선의 필독도서라 하여 권장하는 글을 발표하고 스스로 기독교가 자신에게 “타 모든 종교에 우선하는 종교(incomparably superior to all other religions)”라 천명하였다(The Gathering II 212-3, 269). 이런 깊은 성경지식과 신앙심은 Holloway가 밝혔듯이 그의 人性형성과 문학적 상상력 및 영감에 큰 자양이 되었으며 따라서 기독교적 메시지가 그의 작품속에 가장 주요한 주제와 모티브로 나타난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Holloway 82).

한편 휘트먼은 정통적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와는 다른 아버지의 인도로 무교회주의자로서 당시의 Quaker교의 개혁을 주장한 Elias Hicks에 의해 그의 또 다른 인성과 예술세계를 형성케 한 급진적이고 초교리적인 신앙관을 만나게 되었다. 이 자유주의적 종교관을 동서양의 신비주의에로 인도하였으며 결국 초월주의에 몰입케 했던 것이다(金永鎬 27). 그러나 이 폭넓은 종교철학 습학은 그의 기독교 지식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삶과 예술의 “다면성(many-sidedness)”을 배양시켰다(Bergquist 270). 다시말해 교리중심적 기독교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이고 인간주의적 종교관을 구축한 것이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그는 후에 쓴 「회상기」(A Backward Glance O'er Travel'd Roads)에서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신구약을 독파했다는 것이다(... in the presence of outdoor influences, I went over through the Old and New Testaments, ...)”라고 진술했던 것이다(풀잎 568-9). Allen 또한 “King James Bible보다 휘트먼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없음(No books is more conspicuous in Whitman's long foreground than the King James Bible)”을 주장한 점으로 보아도 동서양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그의 기독교 사상을 위해할 수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Allen, 『A Reader's Guide to W. W.』 24).

휘트먼은 그러나 예술창작에 있어 결코 성서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시집 『풀잎』(Leaves of Grass)을 “poetry of New Bible”이라 공표하고²⁾ 스스로 “종교적인 충만

2) 『The Bible As Poetry』『Prose Works』 822

“No true bard will even contravene the Bible. For I say at the core of democracy, finally, is the religious element.”

과 찬양(religious rapture and adoration)”(풀잎 565)이라 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미국민의 종교인 민주주의의 찬송임을 천명하고 자신을 현대 미국의 “통역자(interpreters of men and women)”중의 하나라고 밝혔다(「Preface 1855」『풀잎』 729). 이같은 사실은 시인이 성서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민주주의 사상을 종교화하고 시예술을 성서화 하겠다는 의표이다. 그러므로 『풀잎』은 그가 지향하는 “신성한 평민(divine average)”과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실현될 미국 “문명과 역사의 지축(axis of civilization and history)”(『Prose Works』II 548)의 찬가이며 실제로 그는 직접적으로 성경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성서적 인유(biblical allusion), 유사한 표현(analogy) 또는 의역(paraphrase)등의 기법으로 성서문학보다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예술로 심화하여 극적으로 구축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휘트먼은 창작과정에서 성서속의 언어와 이미지,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목소리, 특히 예수, 아담과 이브 및 이사야(Isaiah)등의 형상을 재현해 보였다. 아울러 성서속의 신화, 사건 및 우화등을 인유하여 극적이고 박진감 있는 구상적 표현미를 창조했다. 격언적이고 계몽적인 주제를 다룬 다른 산문들과는 달리 시작품에서는 독자와 신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강조하는 대화체로써 성서적 수법을 원용하여, 보다 역동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미학을 구축하여 시적 진정성을 확보하였다(Crawley 47).³⁾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성서와 휘트먼 시 예술과의 영향관계를 추출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작품속에 나타난 성서적 제재(biblical subject)와 모티프(motif), 유사한 표현(analogy), 성서의 명명(naming), 인물(characters); 의역(paraphrases) 그리고 성서적 재현(biblical echoes)등을 탐색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 휘트먼과 기독교 및 성서와의 관계 또는 영향들이 적지않게 연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인의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성향과 현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와 함께 Puritanism 또는 Calvinistic Orthodoxy에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일관되고 통일된 기독교 시학이 추출된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작품속에 투사된 성서적 이미지리와 sources를 탐색하여 시의 주제분석에 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 휘트먼 예술이 기독교시학위에 축조되었음을 명징하게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Crawley 47. “The biblical elements in *Leaves of Grass* are used as devices for forceful communication, a communication of what Whitman felt to be new and shocking concept of man and his relationship to his fellows and to God.”

II

1855년 『풀잎』초판에 발표한 「Starting from Paumanok」에서 휘트먼은 그의 시집이 종교의 등가물임을 “the greatness of Love and Democracy, and the greatness of religion (풀잎 21)라고 선언하면서 인류애, 민주주의 그리고 종교의 삼위일체적 충위를 제시해 보이고 있다. 그는 또 시집을 성서로 상징화 하여 독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성서적 메시지로 언표하고 있다: “This is what you shall do, Love the earth and sun and the animals, despise riches, give alms to every one that asks”(351). 이 시의 내용은 예수가 한 부자에게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는 성서내용의 재현(biblical echoes)이라고 보겠다(Jesus said unto him, if thou wilt be perfect, go and sell that thou hast, and give to the poor, and thou shalt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and follow Me : 마태복음 19 : 21).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예수 모습을 취하고 그의 예술이 영혼이 갈급한 자의 “보물(treasure)”임을 비유하여 성서적 복음으로 등가화하고 있다. 미국민의 정신적 구원자로서 민주주의와 사랑을 계도하는 “새로운 성서(New Bible)”로 상징화 하였으며 성서적 주제와 모티프, 언어와 이미지리를 빌려와 詩化 한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휘트먼의 문학은 성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의 정치, 사회, 종교관이 성서복음과 병치되어 투영된 예술성을 볼 때, 그의 시의 원리가 기독교적 시학과 일치됨을 알 수 있어 시인을 “성서의 통역자(interpreter)”로 본 Bergquist의 주장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the vital principle of Whitman's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beliefs are intimately concerned with his percept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 Bible. To say that Bible is a sacred book means, for Whitman, that it expresses profound ideas and principles that are directly analogous to and vital for his own life and the issues of his time. He sees himself as a modern-day interpreter and transformer of biblical themes and values”(125).

휘트먼은 실제로 작품속에 “Bible” 또는 “bible”의 명명을 보여 주었다. 「A Song for Occupations」에서 그는 “We consider bibles and religious divine-I do not /say they are not divine”(214)라 하고 “bibles”라는 명명에서 기독교 뿐만 아니라 타종교의 경전 그리고 자신의 詩작품의 성서적 등가를 포함시키며 소문자로 하여 humanism과 divinity의 접목으로 詩적 신성성의 궤적으로 상승시킨다. 그는 또 「With Antecedents」에서 “I see that old

accounts, bibles, geneologies, /are true, without exception”(241)으로 노래하여 자신의 시예술이 다른 고전들과 함께 성서적 진리와 가치의 시간적 초월성을 담지함을 밝히고 세대의 연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Passage to India」에서는 bible을 현대과학과 접합, 그 몰심양면의 가치와 시공을 초월한 역사와 종교의 일체화를 제시하면서 bible이 자신의 귀중한 시적 플롯 “the daring plots of the poets”(412)이 됨을 공표한다.

성서와 동서의 모든 종교와 과학, 역사 및 신화를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지평으로 한 자원으로 통합하고, 그를 계몽하는 예술을 휘트먼은 기독교역사의 “paradise”를 회복하고 신이 “약속한 땅(the Promised Land)” 즉 새로운 에덴동산(“the Garden New Ascending”)(90)으로 인도하는 신성서(“budding bible”)임을 투영시키고 있다: “To realms of budding bibles, / the voyage of his minds return, /To reasons early paradise, / Back, back to wisdom’s birth, to innocent intuitions, /Again with fair creation”(418). 여기서 “budding bible”로 암시된 시는 참된 신세대를 낳는 정신적 지표이며 이는 모든 개인과 개인, 자아와 타아 또는 세계와의 신성한 일체성의 통일된 내적 인식의 회복에서 만 가능함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詩는 곧 “구원로의 인도자(saviors)”의 기능을 보여준다: “thy saviors countless, latent within thyself, thy /bibles incessant within thyself, equal to any, divine as any”(459). 이로써 詩 한편 한편은 독자들이 노래할 찬양이며 그 찬송의 대상인 신미국의 새로운 “아담의 자손들(Children of Adam)”을 탄생시킬 “대모(great Mother)”로의 위상으로 상승된다: “These leaves and chants, thy chants, great Mother”(458). 이상과 같이 휘트먼은 직접 Bible을 bible로 바꾸어 명명하며 자신의 시집을 humanistic bible의 충위를 구축하고 종교적 구원과 천국회복 또는 재창조의 주제를 자신의 시적 주제와 모티브로 병치해 보였으며 성서적 언어(“paradise,” “chants,” “savior”등)와 이미지리(“voyage,” “great Mother”등)들을 사용하여 그의 시학의 원리가 기독교에 뿌리를 깊게 내렸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Allen, 「Biblical Echoes」 303).

다음으로 시인은 성서의 지명(place)등을 사용하여 시적 무대로 환치한다. 「Salut Au Monde」에서 그는 구약의 “Euprates,” “Nineveh,” “Ararat”와 신약의 “Nazareth,” “Damascus,” “Lake Tiberias”를 빌려와 시적 세계를 성지로 격상시키고 주제와 구조가 성서적임을 암시해 작품의 종교적 위상을 축조한다. 그는 또 「Song of the Exposition」에서 “Muse”가 “Greece”와 “Ionica”를 거쳐 “Parnaeus,” “Jerusalem” 및 “Mount Moriah”같은 성지를 순례하다 결국 America에 당도하는 추체험을 여실하게 노래했다:

“Come Muse migrate from Greece and Ionica, /…/Placard “Removed” and “To Let” on the rocks of your snowy /Parnassus, /Repeat at Jerusalem, place the notice high on Jaffa’s gate and on /Mount Moriah”(196). 이 종교적 지명의 현실세계로의 이식은 그의 시세계가 종교성과 세속성의 대립항을 통합하는 화해형으로 전이됨을 시사하는 것이며, 곧 시인의 민주주의국가 이상은 기독교 정신의 연장선에서 실현되는 의표를 발현하는 것이다.

성서의 지명(Biblical place)에 이어 휘트먼은 술한 성서인물들을 등장 시켰고 가장 주요한 인물은 역시 예수이며 아담과 이브, 바울과 베드로 같은 使徒, 이사야 같은 선지자 그리고 루시퍼(Lucifer) 또는 사탄(Satan) 등이다. 「The Sleeper」에서 시인은 “Now Lucifer was not dead-or if he was, I am his sorrowful terrible heir”(627)라고 하여 자신을 이사야(14: 12)의 “lucifer”로 형상화하여 세속적인 자이를 반성하고 있다. 또 「Chanting the Square Deific」에서 이 lucifer는 저항적이고 영웅적인 사탄으로 나타난다. “노예의 형제(brother of slaves)”(444) 역할을 하는 존재로 제시되어 시인의 정통적 기독교 선악의 구별의식을 표출해 보이기도 한다.

예수의 등장은 작품속에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어 시인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biblical persona이다. 「Song of Myself」(43)에서 예수의 죽음과 재림에 대한 시인의 청교도적이기 까지 한 강한 반응을 볼 수 있다: “Enclosing worship ancient and modern. /Believing I shall come again upon the earth after five thousand years, /Accepting the Gospels, accepting him that was crucified, knowing assuredly that he is divine, /To the mass kneeling or the puritans prayer, or sitting patiently in a pew, .”(78) 인용시에서 시인은 자신을 5천년 후에 재림하는 예수와 유사한 인물로 암시하면서 동시에 십자가 고난을 받는 예수앞에 무릎을 꿇는 “puritans”속의 한 존재로 그려 보여 자신의 聖俗二重의 태도를 표출해 보인다. 그는 한편 예수와 함께 “Judaea”땅을 동행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순례자의 초상을 그려 보인다: “Walking the old hills of Judaea with the beautiful gentle God by my side,”(64). 흥미로운 것은 “Christ”를 “beautiful gentle”이라 형용하여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렸고 이로써 신과 인간과의 친밀성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번역하고 기록하는 제자임을 여실하게 그려 보여 시가 복음(“New Bible”)의 다름 아님을 제시하고 있다: “I hear the tale of the divine life and bloody death of the beautiful God the Christ”(139). 이어 그는 예수가 인간들의 동반자로서 깊은 동료애를 시현해 보임을 자신에게

투사시켜 시인 스스로 신성함을 체득하면서 아울러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Underneath Christ the divine I see /the dear love of man for his comrade” (121). 여기서 신과 미국인 그리고 자신의 일체적 모습을 시적으로 구획하고 기독교 정신과 인본주의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음을 추출할 수가 있다.

예수는 이렇게 詩 속의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어 독자와 함께 삼위일체적 聖體가 된다. 다시 말해 신이 시인이 되며 신과 시인은 곧 독자와 하나가 될 때 시적 진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로 전선에서 희생된 한 병사의 얼굴을 예수의 얼굴로 환치시키며 이것을 체험하는 시인은 그 상황에 참여하여 일체가 되는 것이다. : “young man I think I know you-I think this face is /the face of the Christ himself, / Dead and divine and brother of all, and here again he lies”(307). 이타적 죽음 곧 한 개인과 인간 구원의 희생자 예수의 “face”를 상호 투영시켜 동위의 등가를 베풀고 성육화(incarnation)의 한 전형을 그렸다. 특히 “blood”의 이미지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피와 동일한 신성성을 입혀 신인일체의 주관을 투사해 보인다: “But one of the soldiers with a spear pierced his side, and forthwith came there out blood and water”(요한복음 19:34). 피묻은 “grass”위에 누워있는 병사는 예수의 “blood”와 섞일 때 비로소 “신의 아들(the Son of God, 마태복음 27:54)”이 되는 것이며, 중요한 점은 이 성육신의 현대적 신화를 시인이 체험하고 예술로써 구축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 역시 성스러운 궤적으로 상승된다는 모티브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인은 시작과정에서 자신을 예수의 형상으로 그 역할을 여실하게 재현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성혈(divine blood)”이 낭자한 병사의 깊은 상처를 봉대로 싸주면서 예수의 자비로운 자태로 나타났다가 다시 급변하여 예수의 시신을 거두는 제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Where their priceless blood reddens the grass the ground, . I dress a wound in the side, deep, deep”(310-11). 시인은 “grass”의 짧은 생명을 암시하는 성서적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priceless blood”로 입혀 다시 기독교적 보혈의 영원성과 구원의 주제를 투영시키고 있다. 아울러 “옆구리(side)”란 단어를 빌려와 예수와 동일한 희생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priceless blood”의 표현으로 예수의 “보혈(ye were ... redeemed ...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베드로 전서 1:18-9)”의 analogy를 보이며 기독교 사상위에 축조된 시적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휘트먼은 이와 같이 인간생명의 신성성과 영원성 및 부활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의 “divine average”와 “성육일체 또는 성육의 이데아(idea of the Deity incarnated)”를 더욱

구상적이고 직접적으로 부각시켜 그려 나간다: "Recall Christ, brother of rejected persons . brother of slaves, felons, idiots, and of insane and diseas'd persons"(590). 예수의 숭엄성과 신성성은 어떤 초월적 절대권위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노예, 병자, 광인 심지어 죄인 같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俗人과 일체가 되는 상황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즉 신의 Divinity 는 평민(common man)과의 일체적 관계에서 시현되는 것이며, 아울러 평민 또는 세속인에게도 정신적 신성성이 내재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속인과 하나된 예수의 형상은 시인이 바로 성서에서 차용한 것임을 곧 쉽게 발견할 수 있다: "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and they say, Behold a man gluttonous, and a winebibber, a friend of publicans and sinners," 마태복음 11: 19). 예수의 초상은 여기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세속적(secular) 인물이다. 모든 인간은 다 신의 형상으로 빛어 졌으며(창세기 1: 27) 외형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행함이 신과 만난다는 메시지를 시인은 여기서 전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를 "divine average"의 전형으로 그려 타락하고 추한 인간의 신성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곧 모든 얼굴에서 신의 얼굴을 직관하고 충만한 성령체험의 노래를 한다: "These faces bear testimony slumbering or awake, /They show their descent from the Master himself"(466). 개인 모두는 "신(Master)"의 "후손(descent)"이며 그의 얼굴이 곧 신성의 "증표(testimony)"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성서적 언어와 세속적 언어를 접목하고 그 주제와 모티브를 병치시켜 시인은 그의 신인일체, 성속일체의 초월적 사유를 시의 정신으로 투사하고 성서문학보다 더욱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화하여 박진감의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휘트먼은 이제 자신을 "Christ-figure"로 재생시켜 예수의 고난을 체험하며, 그러나 세상에 서 "배반(rejected)"를 당하는 추체험을 밝힌다.

From this side lo! the Lord Christ gazes

 All sorrow, labor, suffering I, tallying it, absorb in myself,
 Many times have I been rejected, taunted, put in prison,
 and crucified,...

(「Chanting the Square Deific」 444)

시인은 한편 그리스의 "Hermes"를 등장시켜 예수의 역할을 여실하게 그려 보여 성서적 메시지

를 의역(paraphrase)해 보이고 있다.

I see Hermes, unsuspected, dying well-beloved, saying to the
 people Do not weep for me,
 This is not my country, I have lived banish'd from my true country,
 I now go back there,
 I return to the celestial sphere where everyone goes in his turn,
 (「Salut Au Monde !」142)

인용문에서 “Hermes”는 예수가 빌라도(Pilate)에게 말한 “an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요한복음 18:36)를 “this is not my country”로 변형하여 표현하고, 또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울지 말 것을 권고한 성경귀절 “But Jesus turning unto them said, Daughters of Jerusalem, weep not for me”(누가복음 23:28)에서 “Do not weep for me”로 바꾸어 대사를 읽게 한다. 여기서 휘트먼은 예수와 이교도 신 “Hermes”를 병치한 의도를 여실하게 드러내는데 이것은 그의 범신론적 태도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천상에 간다(every one goes)”라는 표현에서 그의 인본주의와 신인일체적 사유를 추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I”를 포함시킨 것은 신과 독자 및 자신의 삼위 일체적 충위를 구축하려는 그의 주관적 의표를 노출시킨 것이다.

III

휘트먼이 예수 다음으로 사용한 성서적 인물들(biblical characters)은 아담과 이브이다. 그의 장시 「Children of Adam」의 제목에서 이미 아담을 등장시키고 다만 시적 무대가 미국일 뿐 주제와 스토리의 구조는 성서에 배경을 두고 있다. 비록 性(Eros)의 묘사가 많다해도 그것은 미국 신대륙에 새 American Adam의 탄생과 민주주의의 에텐 동산을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O I say these are not the parts and poems of the body only, but of the soul”(「I Sing the Body Electric」101). 性은 여기서 시정신의 원력이며 종교적인 차원까지의 가치성을 지니고 있고 그 충족이 개인과 사회의 대의적 완성을 위한 동력이 된다. 性을 종교적 구원의 성력(聖力)으로까지 승화하기 위해 시인은 성서속의 아담을 등장시켜 자신의 시적 persona로 대역케 한다. 즉 전통적 puritanism의 관점에서 性모랄을 해방시켜 미국의 차세대

로 하여금 자유롭고 순수한 성의 충족 또는 그 회복을 피하게 한다. “성이야 말로 신의 선한 창조 중의 하나(sex is a part of God’s good creation)”임과 성을 찬미함이 곧 그의 시적 의무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 “God overlook’d all that He had made (including the apex of the whole- humanity-with its elements, passions, appetites) and behold, it was good” (Prose 496-7). 이 육체(passion) 찬미는 신이 세상창조 6일째, 인간 육(flesh)을 위한 “meat”로써 “beast”와 “greenherb”를 창조한 후 보기에 좋았다고 성서문구 “And G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창세기 1 : 29-31)를 모방, 의역한 것이다. 시인은 신이 창조한 “meat”가 곧 인간본능(“element”)인 “성애(passion)”와 “식욕(appetites)”을 신성시 하는 표상물로 수용하여 에로스의 축송을 창조한 것이다.

휘트먼의 성은 이렇게 성경에 근원을 두었으면서도 한편 퓨리턴의 육체와 성애의 도덕적 비판을 허용치 않고 어떤 수치와 죄의식에 구속되지 않는다.

Sex contains all, bodies, souls,

 Without shame the man I like knows and avows the deliciousness
 of his sex,
 Without shame woman I like knows and avows hers.
 (「A Woman Waits for Me」101-2)

이제 화자는 여인과의 성애가 자신들만이 아닌 타인들에게도 유익한 것임을 노래하여 성의 대의성을 언표한다.

I am for you, and you are for me, not only for our own sake, but
 for other’s sakes,

 I pour the stuff to start sons and daughters fit for these states,

 I shall look for loving crops from the birth, life, death,
 immortality, I plant so lovingly now. (103)

성은 미국의 신세대를 탄생시키는, 곧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동력인 것이다. 이 성의 자유로운 충족은 역시 성경지식에서 시인이 확보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And they were both naked, the man and his wife, and were not ashamed”(창세기 2:25). 이 창세기의 내용은 시인에게 성을 금기시하고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적 보수성을 지닌 퓨리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표출하게 한 근거가 되었다. 성서속의 eroticism을 그는 곧 미국의 새로운 에덴동산 “The New Garden of the West”(107)을 창건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보고 태초의 아담과 이브의 “innocent”한 육적 사랑의 회복이 최우선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O to return to Paradise! O bashful and feminine!

.....

To be lost if it must be so !

To feed the reminder of life with one hour of fullness

and freedom! (「One Hour to Madness and Joy」106)

이와 같은 아담과 이브의 열정의 회복은 곧 민주주의의 신세대(“my Adamic and fresh daughters”)의 “출산(procreation)”을 가져오며 신의 약속을 실행하는 신성한 부성과 모성(“the great chastity of paternity, to match the great chasity of maternity”)의 창조와 다름 아닌 것이다(105). 전통적인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추방의 관념을 상쇄시키고 오히려 성의 충족으로 새 “Paradise”를 건설하는 모티브를 담지한 그의 시는 곧 “성의 축송(songs in sex)”이며 “미국인 아담들의 찬송(shouter of Adamic songs)”인 것이다(Bergquist 152).

휘트먼은 미국에서 이제 동양으로 키를 돌려 아시아의 아담과 이브의 세계와 그 후손의 연대성을 확대, 증폭시킨다 : “Down from the gardens of Asia descending radiating, / Adam and Eve appear, then their myriad progeny after them,”(「Passage to India」415). 그는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하나의 민주세계를 구획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담과 이브를 등장시켜 신기독교의 통일된 세계, 즉 새 에덴동산을 창조하는 시적 모티브를 구획하고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상황의 전개를 유사하게 그려 보인다.

O vast Rondure, swimming in space,
Cover'd all over with visible power and beauty,

Alternate light and day and the teeming spiritual darkness,
 Unspeakable high processions of sun and moon and countless
 stars above,
 Below, the manifold grass and waters, animals, mountains, trees,
 With inscrutable purpose, some hidden prophetic intention, (415)

시인이 사용한 언어가 창세기 I 장에서 볼 수 있는 성서적 언어(“space,” “light,” “day,” “darkness” 등)들이며 상황 또한 성서의 procession과 유사하다. 아시아의 에덴동산 창조는 “hidden prophetic intention”이라 하여 기독교 신을 투영시키면서 동시에 이를 실현시키는 주체는 곧 자신(“the poet worthy that name”)임을 밝히고 “신의 아들(the true son of God)”의 자아 완성의 축송을 노래한다.

After the seas are all cross'd (as they seem already cross'd,)
 Finally shall come the poet worthy that name,
 The true son of God shall come singing his songs. (415)

인용시에서 화자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evangelist의 사역을 완수하는 사도 또한 “prophet”의 이미지를 바로 성서에서 획득하였음을 보여준다 :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reach'd in all the world for a witness unto all nations, and then shall the end come”(마태복음 24:14). 이와 같은 성서 인용의 기법과 주제 및 구조의 analogy를 극적으로 직조한 휘트먼은 Bergquist의 설명대로 시가 곧 세계통일의 복음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주제는 “Messiah theme”이며 “savior-poet”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Berg-quist 155-56). 더우기 위의 인용시가 성서적 인용임은 바로 이사야 예언서와 비교할 때 자명해 지고, Bergquist가 시인이 이 성경을 의역(paraphrase)하고 재현(echo)한 것임을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56).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Lord.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shall be made low. (이사야 40:3-4)

이상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보면 휘트먼은 신 미국과 동양이 하나의 신기독교적 통일세계가 자신의 시("gospel")로 완성되는 시적 모티브를 바로 성서에서 확보했음이 드러난다. 그것은 그가 성서의 언어, 이미지 및 플롯을 차용, 인유했으며 詩作 과정이 성서의 역사와 병치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믿음을 증폭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그의 詩業은 "savior-writer"(Bergquist 156)로써 자신을 사도와 예언자의 위상을 체득하고 나아가 예수와 같은 정체층위를 확보하는 聖業인 것이다 : "Nature and man shall be disjoin'd and diffused no more, /the true son of God shall absolutely fuse them"(416).

세계는 기필코 통일이 될 것이라는 시인의 이와 같은 이상주의는 이제 생사를 초월한 그리스도적 희생의 정신과 열정을 발현한다 : "All the world have I given up for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sake, for the soal's sake"(444). 이 강렬한 희생정신과 구원의식은 마태복음에서 그 출처를 만나볼 수 있다.

For whoever wi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and whosoever
will lose his life for My sake shall find it.
For what is a man profited, if he shall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 (마태복음 16 : 25-6)

위의 인용시와 성서복음을 비교분석해 보면, 살신성인의 주제를 다같이 담지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의 본질은 "soul"이라는 점, 그리고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는다는 역설적 비유를 다같이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점은 성서속의 예수의 경고를 시인은 그대로 복종하고 희생적 사랑을 시현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그의 시업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적 수행이며 인류와 자이를 구원하는 구도적 성업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시가 "하늘의 처소(the heavenly mansion)"로의 "안내자(opener and usher)"임을 자임하는 것이다(269). 여기서 그의 정체는 하늘에 먼저가 제자들의 처소를 준비하겠다는 요한복음 속의 예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또 유사한 메시지를 재현해 보이고 있다("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요한복음 14 : 2). 그는 이미 「Song of Myself」33에서 풍랑으로 고난에 처한 제자들에게 한 예수의 말("Be of good cheer, it is I, be not afraid. "마태복음 14 : 27)을 "Be of good cheer, we will not desert you" (66)라고 모방 의역하였으며, 중생속에 함께 하는 예수의 초상("I am the man, I suffer'd, I was there")(66)⁴⁾ 을 여실하게 그려 보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휘트먼 시의

theme과 subject 및 motif는 물론 “life,” “death,” “usher” 등의 이미지리를 성서의 그것들과 병행(parallelism)시켜 성서적 인유와 구조를 축조하여 성서를 인본주의 문학으로 변형하고 동시에 세속적 문학을 신성한 단계의 궤적으로 상승시켰던 것이다. 이로써 시인은 간접적으로 그의 시학의 근원이 기독교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IV

휘트먼 시의 상징적 이미지인 “풀잎(grass)”은 지상과 하늘이 일체라는 관념을 담지하는 우주적 보편성과 영원성의 특성을 표출하는 대표적 상징체이다(金永鎬 256). Frederick Schyberg는 이 “grass”를 “자연속의 위대한 민주주의 상징(the great democratic symbol in nature)”(Schyberg 84)으로 보았고, Allen도 시공을 초월한 생명의 보편성, 즉 “탄생, 죽음 및 부활의 영원한 순환(the eternal cycle of life, death and resurrection)”의 상징체로 취급했다. 시인은 한잎 풀잎과의 교감을 통하여 우주적 질서와 신의 섭리를 직관적으로 체득하여 궁극적으로 신에의 찬미를 걸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 “grass”상징 또한 성서에서 그 근원적이고 풍성한 자원(sources)을 확보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를 기독교 시인으로 인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Or I guess it is the handkerchief of the Lord,
 A scented gift and remembrancer designedly dropt,
 Bearing the owner's name someway in the corners, that we may
 see and remark, and say Whose?

.....

The smallest sprout shows there is really no death. (33-34)

시인은 “grass”를 “신의 손수건(the handkerchief of the Lord)”으로 비유하여 그것의 신성성의 내재를 언급하고 “Whose”라는 표현을 써서 그 존재의 본원을 “소유자(owner)”인 신(창조자)에게로 귀속시킨다. 그러나 그는 모든 육체를 풀로 비유한 성서내용(“All flesh

4) Bergquist 158. Bergquist는 Whitman을 “savior-figure,” “a universal Christ-figure”라고 칭한다.

한 것이다(Whoever degrades another degrades me, / And whatever is done or said returns at last to me)”(52)⁷⁾ 라는 유사한 표현(analogy)으로 시화한다. 나아가 그는 자신을 못박는 인간들을 용서하는 예수를 자기화하여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의 폭력에 관용으로 구원을 시현하는 추체험을 통해 스스로 “피묻은 월계관”을 향수하는 신비적 영험을 체득한다.

That I could forget the mockers and insults!
 That I could forget the trickling tears and the blows of the
 bludgeons and hammers !
 That I could look with a seperate look on my own crucifixion and
 bloody crowning. (72)

결론적으로 “grass”이미지는 시를 표상하고 이는 신미국의 성서로 상징화 되었으며 시인은 이 미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도의 위상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 신성한 자아는 구약에서의 절대적 권위의 예언자나 율법자가 아닌 신약에서의 보편적이고 실행주의적인 Christ와 또는 그의 제자로서의 인간주의적 성자이다. 중요한 사실은 “grass”이미지를 사용한 그의 시의 언어, 사건, 주제 및 여러 연상적 이미지들의 출처가 성서에 있으며 이로써 시 예술의 자양과 시학의 원리가 기독교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다(“sea”)는 풀잎 다음으로 휘트먼의 시(“ocean poem”)의 중요한 오브제인 이미지가 다. 바다는 신과 자아, 자연과 세계가 일체라는 풀잎의 등가물이며 동의적 표상물이다. 풀잎에서 생명의 외경과 신비를 체득하고 신의 세계를 영험포착한 것처럼 바다에서 시인은 신이 임재한 성역이며 신의 나라를 향한 시적 도정임을 견득한 것이다. 예술과 신앙의 완성과 자아 실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정신적 모체이다. 생명의 출발지인 동시에 이상세계(민주주의 세계)로 가는 “상징적인 종교적 도정”이다(金永鎬 272). 시인은 이 바다를 종교적 순례지, 신과 만나는 성지, 즉 그의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극적 무대로 시화한다. 따라서 그는 풀잎의 구도처럼 성서속의 바다 이미지리에서 시적 주제와 모티브, 언어, 역사 및 신화를 추출인유하여 극화한다. 그 한 예로 시인은 예수가 제자를 구하는 무대인 해변(갈릴리)에서 자신의

7) Bergquist 181과 Crawley 63 참고.

시업을 출발한다 : “What with some fisherman drawing his seine by the shore as I walk by and pause ? . Allons! whoever you are come travel with me !”(『Song of the Open Road』 153-4) 예수와 같이 그는 어부에게 접근하여 “그물(seine)”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Allons!)”하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를 그대로 재창(echo)하고 있다. 성서의 “Follow me”를 “Allons !”로 불어를 사용한 것은 Berg-quist의 지적대로 시인의 특유한 “간접수법(indirection)”(211)이며 이는 성서에 그대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의 자유스러운 의표라고 보겠다. 그러나 인용시의 주제나 모티프가 성서의 것과 유사하고 무대(seashore)가 같으며 화자의 태도(pose)와 음성이 유사한 점, 그리고 자기의 제자를 신분이 낮은 어부를 택하는 예수의 의도를 모방한다는 점에서 그의 성서에의 영향은 자명해 진다.

휘트먼의 시적 구도(pilgrimage)는 이제 물질을 초월한 종교적이기 까지 한 정신적인 단계로 상승한다. 예수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할 것을 권유한 성서의 내용(마가복음 6:19, 누가복음 12:33)을 “you shall not heap up what is call'd riches”(153)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재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이 부친장례를 불허하는 예수의 경고(마가복음 8:22)를 그대로 모방하여 자신의 시적 순례에 있어 어떠한 장애도, 심지어 “시체(cadaver)” 또는 “장례(burial)”까지도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 “The stale cadaver blocks up the passage-- the burial waits no longer”(155). 그의 이 열정적인 선교사업으로써의 시 창작활동은 바로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와 한 몸이 될 때 가졌던 순항의 역사를 스스로 추체험하게 된다.

O what is in me that makes me tremble so at voices ?
 Surely whoever speaks to me in the right voice, him or her I shall
 follow,
 As the water follows the moon, silently, with fluid steps, anywhere
 around the globe. (『Vocalism』384)

이와 같이 시인은 신의 “목소리(voice)”를 재창하는 자임을 자임하고 그의 시업을 기독교적 순례의 상징적 층위를 구축한다. 이로써 바다는 그의 선교무대이며 지상천국(“The Open Road”)로 가는 도정으로 투사되었다.

그러나 바다 또는 물결(water) 오브제는 순항만의 이미지리만을 표출하지 않는다. 순례의 도

정은 고통과 시련 심지어 죽음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바로 이 시련과 비극의 주제를 성서적 고난으로 병치시켜 보인다.

Death or life I am then indifferent, my soul declines to prefer,
 (I am not sure but the high soul of lovers welcomes death most,)
 Indeed O death, I think now these leaves mean precisely the same
 as you mean,……. (「Calamus」114)

물론 여기서의 죽음은 신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자신과 국민(“lovers”)을 위한 시창작의 헌신을 기독교적 순교로 환치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wonderful to depart”(415)이며 시편들(“leaves”)은 곧 죽음의 찬가인 것이다. 이같은 생사를 초월한 강한 신앙심에서 발현된 창작욕은 바울의 정신에서 그 영향을 받았음을 보인다: “For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For I am in a strait betwixt two, having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빌립보서 1: 21-23). 시인은 바울의 “desire to depart”와 “far better”를 “prefer”와 “welcome”등으로 바꾸어 죽음으로써 오히려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바울의 순교정신과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희생정신을 병치하여 발표한 다음의 시구는 더욱 그의 기독교 정신의 시학을 확인 시킨다.

Death is beautiful from you, (what indeed is finally beautiful
 except death and love ?)
 O I think it is not for life I am chanting here my chant of lovers,
 I think it must be for death, (115)

“죽음”을 “아름다운(beautiful)”것으로 향수하되 그것은 다만 신과 “연인들(lovers)”을 위한 헌신일 때만 체득하는 성령의 은혜이다. 여기에서 시인의 “노래(chant)”가 현세를 향한 것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복음이며 찬송인 것으로 암시되었다. 바울의 종교적 사관을 인유적으로 표현하고 시적 대화체 또는 서간체의 구조를 모방하였으며 언어의 음보 및 주제와 이미저리가 유사한 점을 추출해 볼 때, 시인의 근본사상이 기독교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휘트먼은 이제 자신의 시업이 씨앗을 뿌리고 “수확(harvest)”을 거두는 성서적 복음전파임

을 암시하고 자신을 “농부(ploughman)”의 정체로 그려 보인다.

As I watch'd the ploughman ploughing,
Or the sower sowing in the field, or the harvester harvesting,
I saw there too, O life and death, your analogies;
(Life, life is the tillage, and Death is the harvest according.) (454)

인용시 속의 죽음은 추수를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본 것은 생과 사가 일치(“analogies”)임을 체득한 경지에서 걸러 나온 사유인 것이며, 그와 같은 인식은 바로 그가 성경에서 습득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주제가 해변에서 예수가 이 세상이 밭이요, 이 세상의 완성이 곧 추수할 때임을 가르친 마태복음(“the field is the world, .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world,” 마태복음 13 : 328-39)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Bergquist의 견해처럼 시인은 “농작의 이미지리(agricultural imagery)”(235)를 바로 성서에서 차용하여 시창작의 가치성을 성서적 층위로 상승시켜 극적으로 시화 했음을 본다.

휘트먼은 바다(해변)와 “field”의 무대에서 이제 성서적 “골짜기(valley)”로 옮겨 순례의 길을 걷는다. 「Death's Valley」에서 그는 다윗(David)의 강한 신앙과 평행한 의지를 인유해 보인다. 시편 23장(“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nd”)에서 시의 제목을 빌려 왔음을 볼 수 있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다윗의 강렬한 성심(“I will fear no end”)을 “I do not fear thee”라는 유사한 표현으로 환치한다. 오히려 죽음은 “하늘로의 성스러운 목자(holiest minister of Heaven)”요 “사절(envoy),” 안내자(ursherer)”이며 “삶이라는 고리를 푸는 열쇠(loosner of the stricture-knot call'd life)”이므로 “sweet, peaceful”한 Death를 환영 (“welcome”)한다. 왜냐하면 죽음이 곧 지상천국(“broad blessed light and perfect air, with meadows, rippling tides, and trees and flowers and grass”)(581)⁸⁾ 을 도달케하는 매개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음은 성서적 영생과 부활이 약속되고 따라서 그의 살신성인의 신념은 바울의 신앙과 동일선상에 있다. 가정법의 반문형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 본다 : “If all came but to ashes of dung, . / Do you suspect death ? If I were to suspect

8) Allen, 「Biblical Echoes in Walt Whitman's Works」304. Bergquist 235 참고.

death I should die now”(439). 휘트먼의 목소리와 유사한 바울의 음성을 들어본다 : “But if there no resurrection of the dead, then is Christ not risen; and if Christ be not risen, there is our preaching vain, and your faith is also vain”(I Corinthians 15 : 13-14). 두사람 동일하게 죽음의 초월정신과 부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며 유사한 질문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바울의 언어와 음조및 태도를 모방한 것이고 Bergquist의 언급대로 성서적 “구도와 형태(format and type)”을 빌려왔음을 보겠다(238). 문장의 표현 형식과 기법에서 뿐만 아니라 헌신과 희생적 순교정신, 부활의 주제와 겹쳐진 시정신에서 성서 문학과 analogy를 확인할 수 있어 시인의 기독교적 시학의 근원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V

이상의 작품분석을 통해서 볼 때 휘트먼은 기독교에서 그의 종교철학 사상이 배양되었으며 그 기독교 종교관은 그의 예술세계 즉 시학의 모체가 되었고 시작의 주제, 모티프 및 플롯이 성서적 이데아와 이미지 그리고 구조의 틀을 모방, 확장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시어와 음조(tone)가 성서적 언어와 음색의 재현등의 analogies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직조한 성서적 인유와 이미지리에서 그 다양하고 변증법적인, 그러면서 구체적인 표현미의 구축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세계와 정신은 그가 사용한 시어(diction)와 이미지에서 추출해 보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그 예로 “grass”와 “sea” 같은 제재들을 사용하여 바로 그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시세계를 열어 보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보여준 낱말들, 특히 성서적 언어와 이미지는 자신의 기독교적 시학으로서의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서의 언어와 이미지로써 휘트먼은 곧 기독교 복음(Christian gospels)들을 번역하면서 성서적 제재와 주제를 변주하고 뜻을 바꾸어 의역을 하는 다양한 극적 구조를 보였다. 다시말해 성서의 의미를 여러 세속적 의미로 파생시키고 상징적 이미지를 서로 병치시키며 산문체의 긴 호흡으로 성서적 음조와 리듬을 재창하고 있다. 이 성서적 신비세계와 현실세계의 겹침은 바로 그의 언어와 이미지 및 문장구조의 극화에서 독자는 시인의 이중세계가 통일된 초월적 정경에 충만한 참여를 하게 된다. 그 좋은 예로 예수의 포즈를 취하고 그의 목소리를 그대로 무대에서 재연하는 시인은 예수와 서로 바꾸어 주체가 되고 독자는 시인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관객으로 극적 장치에 유도되는 것이다. 이러한 휘트먼의 시창작의 극적구

조의 방법론적 특색은 기독교 정신에 대한 그의 도지한 천착을 신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현실세계로 투영시키고 자신의 인간 이상과 종교적 이데아의 하나된 세계의 심부를 다양한 색채와 형상으로 조명한다. 다시말해 성서와 시 및 무대가 신과 자신 그리고 독자(국민)가 하나가 되는 삼각구조의 시적 장치의 연유로 삼위일체의 형상이 되어 시세계에 중심부로 현현하게 되는 것이다.

휘트먼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메시지 곧 자비, 구원, 희생, 죽음과 부활의 성서적 주제들을 자신의 시적 주제속에 삼투시키고 다시 각색하여 재생시킨다. 이를 위해 예수를 자기 작품의 주인공(hero character)로 등장시키고, 그러나 율법적인 구원자로서만이 아닌 인간신(man-god)의 형상으로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아 이미지(self-image)로 변모시켰으며 나아가 독자(미국인 또는 대중)와 일체가 되는 신성하면서도 세속적인 인간신으로 재구성하여 그려보였다. 아담과 이브 또한 신성한 인물이면서 세속적인 “Children of New America”로 변형하면서 동시에 시속의 persona 또한 “divine image”로 격상시키는 작업을 보인다. 그는 이렇게 성서속의 인물, 역사 또는 사건, 신화, 이미저리등을 사용하여 시예술의 언어, 내용들을 조직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이분법적인 기독교 전통을 뛰어넘은 인본주의와 신낭만주의 풍의 초월적이고 범신론(汎神論)적 또는 무교리주의(無教理主義)적 세계를 구축하고 그 위에 너와 나, 영과 육, 聖과 俗, 미와 추, 성과 혼의 일체성을 시현하고자 했다. 그의 이 일체관은 사랑, 자유,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개인의 신성(divinity)를 신뢰하는 주장에서 나온 “divine average”의 나라, 곧 민주주의 미국과 세계 “the New Promised Land”를 실현하는 원동력이요 신앙이 되었다. 이 “the New Promised Land”에선 모든 개인의 주제성과 個性(personalism in divinity)이 약속되는 것이며, 형제애(brothership)와 자매애(sistership)가 결속된 “Children of Adam”의 동료애(comradeship)가 구현되는 것으로 선언된다. 또 이 Earthly Garden으로서의 新園은 정치, 사회, 문화 뿐만 아니라 과학의 통일을 수반하며 동과 서가 하나가 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열어보인다.

이같은 선언적 의지가 담긴 휘트먼의 시예술은 스스로 언표하였듯이 “New Bible”의 상징체이다. 여기서 “New”라는 수식은 성서적 세계의 자기화(휘트먼)을 표징하는 것이며, 인물과 무대를 청교도(puritan)에서 현실로 장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Bible”이란 명명은 그의 시적 본원이 기독교 또는 성서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성서의 제재(subject)와 플롯이 자신의 詩의 주제와 모티프 및 구조로 새롭게 탄생된다는 의표이다. 이것은 또 당대의 현실세계에 필요한 성서이며 독자를 위한 gospel-poetry 또는 신시편(New Psalm)이 탄생된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휘트먼은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더 많은 재료(source)를 가져왔다. 물론 창세기, 시편 그리고 이사야등 Hebrew성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시에서 보다는 산문에서 다양하게 이식되었다. 그는 유년기의 종교체험의 재생과 그를 통한 거듭 태어나는 내적 구조로써, 또 그 모방의 대상으로서 예수의 이미지의 재현에 가장 큰 열정을 보였다. 그러므로 자연히 신약의 복음, 특히 마태와 요한복음에서 많은 언어, 인물 및 이미지리등을 차용하여 한편의 시가 그의 종교적 儀式이 되게하였다. 그는 이 의식을 위해 성서속의 무대, 주인공 및 상황을 자신의 극적 세계로 옮겨온 것이다. 즉 자신을 예수의 극적 역할을 공연하기 위해 예수의 권위, 신성성, 자비의 표상적 모형과 계몽자, 선생, 순교자 나아가 聖俗의 사랑과 그 연인으로써 이미지를 그 자신의 세속적 삶과 예술에 침투시켰던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性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자유로운 충족에서 그것의 신성성을 체험하고 축송한다는 것이다. 性이 곧 인간과 세계구원의 한 방편이며 동력으로 기독교적 구원과 일치시켰다는 점이 바로 그의 인본주의에 바탕한 기독교적 태도라 하겠다.

열정적이고 혁명적인 성향의 휘트먼은 후기에 가서 점점 인류의 구원에 대한 명상과 기도, 특히 시련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도깊게 다루었고, 예수의 수난과 역사를 자기의 삶과 예술의 통과례로 재현해 보였다. 따라서 의로운 죽음은 부활을 약속받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의 에덴동산으로 이르는 통과 의식으로써 희생적 사랑에 따른 고통과 죽음을 축송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시적 태도가 관념과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며 자연히 성서속의 주제나 언어 및 그 역사의 적절한 표현을 지양하고 간접적인 은유나 직유, 특히 allusion, echoes, paraphrase 등의 비유형식을 소위 그의 특유의 "indirection"의 표현방식을 보였다. 이 특성은 그의 시예술이 성숙함에 따라 성서에의 직접적인 의존의 인상을 피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자유롭고 유창한 언어와 리듬, 다양하고 폭넓은 상징적 단어와 이미지의 직조를 통한 인본주의의 도저한 천착에서 생성된 세속적 기독교와 초월세계의 완성을 꾀했던 시적 모티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겠다.

이 전통을 뛰어 넘는 초월적 태도의 한 예를 휘트먼은 「Song of the Open Road」에서 보았다: "Whoever denies me it shall not trouble me, / Whoever accepts me he or she shall be blessed and shall bless me"(152). 이 구절과 다음의 예수의 경고를 본다: "But whoever shall deny me before which is in heaven"(마태복음 10: 32-33). 이 두 문장을 비교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자에겐 부인하겠다는 예수의 단호한 태도와 달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

일지라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긍정적 포용성을 보이는 휘트먼의 태도에서 시인이 기독교주의(Christianism)의 한계성을 뛰어넘고, 나아가 성서에 완전한 의존을 탈피하여 자신의 더욱 원대한 휴머니즘을 직접적으로 공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휘트먼은 근본적으로 성서적 이데아와 메시지에 대립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詩적 모체와 본원은 기독교 정신과 성서이며 다만 그의 인본주의의 성향이 이 본원에서 파생된 현상이며 그것은 다시 기독교주의로 귀환하는 순환의 틀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그가 취한 부정적 일면은 성서의 내용에 보다는 당대의 교회와 교리중심의 기독교체제에 대한 비판을 연표하기 위한 작위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휘트먼은 성서를 자신의 시예술의 텍스트로 하고 기독교사상을 그의 詩作의 원리로 하여 탈정교론적이고 탈교리중심적인 기독교적 인본주의 또는 인본주의적 기독교(humanistic Christianity)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인간성과 모든 존재에 편재된 신성성이 합일된 신성한 민주주의(divine democracy)와 세계주의(cosmopolitanism)의 이데아를 축송하는 새로운 詩篇(new psalm)을 창조 했음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金永鎬 「Whitman의 사상과 배경」 『한용운과 휘트먼의 문학 사상』 사사연, 1988.
- Companion Bible, The King James Version. Grand Rapids : Michigan, Zondervan Bible Press, 1974
- Allen, Gay Wilson. *The Solitary Singer. rev. ed.* New York : N. Y. Press, 1969.
- _____. *A Reader's Guide to Walt Whitman.* New York : Farrar, Straus & Giroux, 1970.
- _____. "Biblical Echoes in Walt Whitman's Works." *American Literature* 6, 1934.
- Bergquist, Bruce A. "Walt Whitman And the Bible : Language Echoes, Images, Allusions, And Ideas," Ph. D. D. S. Lincoln : Nebraska University, 1979.
- Crawley , T. E. *Structure of Leaves of Grass.*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0.
- Hart, James D. *The Oxford Companion to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Holloway, Emory. ed. , "Bible as a source of Whitman's inspiration," *The Collected Poetry and Prose of Walt Whitman.* New York : Doubleday, 1921.
- Schyberg, Frederick. *Walt Whitma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 Whitman, Walt. *Prose Works 1892.* ed. Floyd Stovall. vol II.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4.
- _____. *The Gathering of the Forces.* ed. C. Rodgers and J. Black. vol II. New York and London : G. P. Putnam's Sons, 1920
- _____. *Leaves of Grass.* ed. S. Bralley and H. Blodgett. New York : Norton Co. , 1965.

ABSTRACT

Whitman's Poetics of Christianity

Kim Yung-Ho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amine that Whitman makes extensive use of the Bible in *Leaves of Grass* thereby proving his poetics constructed on the ground of Christianity. The instances of the biblical allusions, imagery and ideas are so numerous to make clear that Whitman intends to explore his world of art out of his own religious soil. I have observed a pervasive use of the Christ-figure portrayed as one of the "few equals" who can teach by word and deeds the righteousness of life and the redemptive value of suffering and sacrifice. A large number of religious concepts are reinforced by the use of the Bible, concepts like the unity of soul and body, the goodness of the physical in general and of sex in particular, and the use of the physical as a means of reaching the spiritual.

And with the biblical association and analogy the themes and ideas are emphasized on the divinity of the common man ; the vista that America could prove to be the "New Promised Land" of the "Children of Adam" and democracy as a new and higher form of religion ; the necessity of commitment to discipleship and to a new practice of religion with science ; the continuity of the ancient religious scriptures with modern poetry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Bible" or "new Psalm" appearing in the new world ; the affirmation that death has a divine role to play in life and that immortality (by resurrection) as definite.

All of these themes have been advanced through the use of allusions to the Bible. In some cases, however, Whitman objects to Puritanism and substitutes his own humanistic view. He shows the devices of biblical images and echoes, but generally sets forth his own poetic world as one of freedom from the bondage of puritan orthodox. Consequently, Whitman employs the Bible in such a way as to reinforce his own humanistic ideas, which nurtured on the ground of Christianity, to create his unorthodox religious poetry and world.